

통권 제 244호

강남. 라 00943

2568
2024

2

원정대성사 일대기
불공잘해라 21
구경의법



심선성취
경복궁속의
불교



살다보면
사자성어는
풍년인데

영원한 신리와 함께

위드 다르마

With Dharma

 불교충지중

진리는 믿음을, 믿음은 공덕을...

진리는 믿음을 생기게 하고, 믿음은 진리를 구한다.

믿음이 높으면 진리는 깊어지나니, 믿음은 공덕을 생기게 하고 공덕은 믿음을 더욱 깊게 하느니라



고전산책 _25



마지막 공부 _50



지혜의 뜨락 _58

이름은 빌려와도
괜찮다_ 최두현

그냥 누리기_ 유소림

가능성에 기회가
있다_ 방귀희

- 04 원정 대성사 일대기
- 10 불교이야기
- 14 마음챙김 메커니즘
- 18 경전에서 찾은 지혜
- 21 문화재 해설
- 25 고전산책
- 29 씨앗 한 알
- 32 절기 이야기
- 34 산책
- 36 살다보면
- 42 지장스님의 향유
- 45 마음 밭 가꾸는 이야기
- 50 마지막 공부
- 53 동행
- 58 지혜의 뜨락
- 62 십선성취
- 66 나만의 빛, 모두의 빛
- 70 서원당 안의 불교
- 72 금쪽상담소
- 76 가로세로 만다라세상
- 78 법회일정

- 불공 잘해라 - 구경의 법 - 김천
- 부처님의 성도2 - 화령 정사
- 육망-다섯 가지 괴로움의 근원 ㉞ - 임진수
- 미리 준비해 두어야 - 불교총치종 법장원
- 광해군 일기_묘호廟號를 받지 못한 임금의 역사 - 워드다르마 편집실
- 이름은 빌려와도 괜찮다 - 최두현
- 모를 때 매 순간이 감동이 된다 - 법상 스님
- 우수 - 워드다르마 편집실
- 냉동 밥을 데우다 - 오대혁
- 사자성어는 풍년인데... - 이육경
- 광명을 짊어지고 - 지장 스님
- 바이러스만이 아니라 정서도 전염된다? - 하현주
- 그냥 누리기 - 유소림
- 산삼 도독의 용서와 보은 - 탁상달
- 가능성에 기회가 있다 - 방귀희
- 경복궁 속의 불교 - 남혜 정사
- 눈으로 읽는 전통등 이야기 - 한국전통등연구원
- 지명地名-총지종 총본산總本山 총지사는 역삼동에 있다 - 해광 정사
- 우리 아이 양육 길라잡이 2 - 강남구 구립어린이집연합회

워드다르마

영원한 진리와 함께
With Dharma



불교총지종

생활불교를 실천하는 밀교종단이며 승속이 함께하는 불교로, 행복한 사회, 차별 없는 세상을 지향하는 이 시대의 대안불교입니다.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함으로써 이 땅의 불국정토를 염원합니다.

다르마_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며,
워드 다르마_는
다르마와 함께 한다는 뜻으로
진리와 함께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말에도 색깔을 지니고 있다

집에서도,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어느 공간이라도 우리는 항상 말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말투에 따라서 상황과 관계가
악화되기도 하고 긍정적으로 바뀌기도 하는데,
이렇게 말투는 중요한 순간에서 결정적으로
좌지우지하곤 합니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에서 설득의 기법으로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토스는 신뢰, 호감을 말하고,
파토스는 공감, 감성을 뜻하며,
로고스는 논리와 이성을 말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상대를 설득하려면
에토스 60%, 파토스 30%, 로고스 10%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식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먼저 에토스를 통해 신뢰를 형성하고,
파토스를 통해 마음의 문을 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은 마음의 지표이자, 거울입니다.
항상 필요한 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면
유연한 인간관계, 인생의 선순환을 불러오는
긍정적인 마음가짐까지도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줄
행복의 선순환은 따뜻한 한마디 말에서
시작됩니다.

- 따뜻한 하루의 <따뜻한 감성 편지 2024년 1월 3일 자>

불공 잘해라 구경의 법

김천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인도철학과를 졸업
저서 '시대를 이끈 창종자'
'인생탈춤-태허 흥선 평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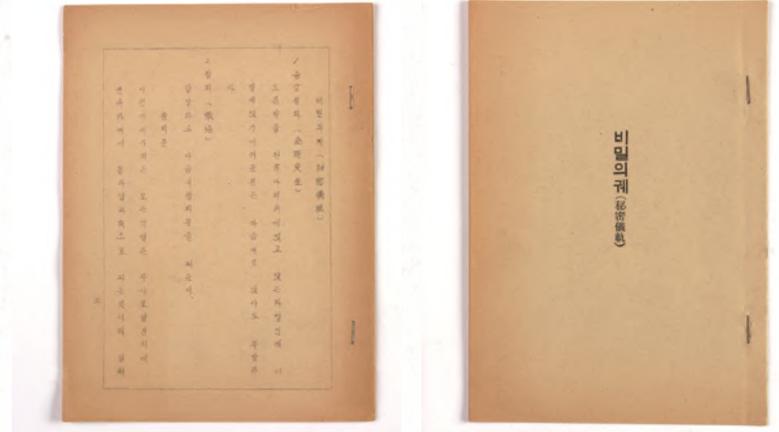


원정 대성사는 경전의 편찬과 역경을 통해 한국불교에 밀교를 처음으로 알렸으며, 1972년 한국의 밀교 대표 종단 불교총지종을 창종했습니다. 교상(敎相)과 사상(事相)면에서 완벽한 체계를 갖춘 정통밀교의 확립에 노력하면서 '즉신성불(卽身成佛)'과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기치로 밀교의 대중화에 진력했습니다. 2021년 창종 50년을 기념하여 출판된 원정 대성사의 일대기 '불공 잘해라'에 담긴 대성사의 삶과 가르침을 위드다르마에서 특별연재로 소개합니다.

13화 - 창종Ⅲ

1972년 9월 9일 모여든 스승들을 위해 밀교수행법의 방법과 공덕을 담은 현밀원통성불심요집(顯密圓通成佛心要集)을 근거로 '비밀불교의 의궤'를 제정·공포하고 전수를 시작했다. 참회, 오대서원, 음남, 음치림, 음마니반메흠, 준제진언, 서원사향, 실지정진, 흠자오인, 회향의 순서로 불사법요를 정립했다. 성불로 가는 진정한 방법은 다라니 수행에 있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닦아야 하는가를 경전에 근거해서 설명한 것이다.

세간 수행법으로서 식재(息災, 재난을 소멸하는 법), 증익(增益, 소원을 성취하는 법), 경애(敬愛, 존경과 사랑을 받고 화합하는 법), 항복(降伏, 일체의 샷된 마장을 조복시키는 법)의 사종수법(四



밀교의 특징을 고스란히 담은 '비밀의궤'_대성사 유품

種修法)을 제시했다. 나라를 구하고 도탄에 빠진 중생을 구하고자 하는 대비원력으로 새로운 종단의 창종을 준비하면서 대성사는 재난을 없애고 소원을 성취하는 데 부합하는 기도법이 사종수법이라고 확신했다. 진각종에서는 행하지 않았던 바라스승들은 사종수법에 깊이 전념했다.

재난을 없애기를 서원할 때는 '제재난 사바하', 구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 서원할 때는 '소구여의 사바하', 화합과 원만을 서원할 때는 '영일체인경애 사바하'의 준제진언을 지송하도록 했다. 원래 밀교의 사종수법은 각각의 작법과 의궤가 다르지만 원정 대성사는 준제진언으로 통일하여 사종수법을 시행하도록 했다. 이러한 세 가지 준제진언은 공식불공, 대중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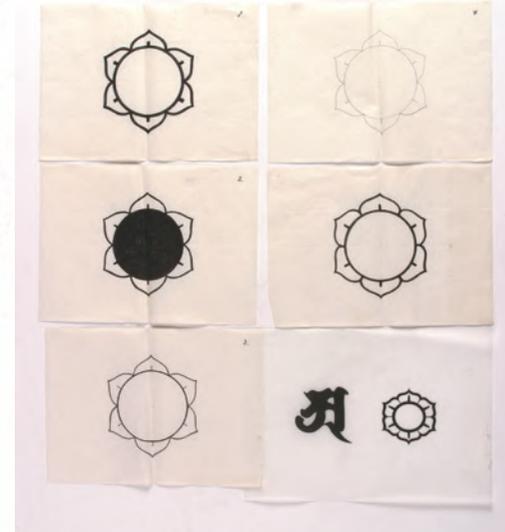
동참법회뿐 아니라 개인 염송 때에도 행했다.

이로써 ‘옴마니반메흠’ 육자대명왕진언과 ‘나무 싯다남 삼막삼뫼다 구치남 단야타 옴 자례 주례 준제 사바하 부림’ 준제진언을 결합 것을 새로운 종단의 핵심 수행법으로 확립했다. 진정한 밀교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수행의 요체를 직접 설명하였는데, 이런 경전의 전수는 종단이 발전한 후에 정기적인 강공으로 진행되었다. 지금도 여법하게 진행되는 강공은 창종 이전부터 대성사가 세운 총지종의 전통이다.

9월 29일에는 종단의 상징에 대한 가르침을 내렸다.

“총지종 교의의 상징이자 종지를 표시하는 동시에 교기와 건물, 그리고 각종 마크와 의복의 배지로 사용될 종단의 상징물은 육합상이다. 육합상은 중앙에 둥근 원을 하고 원으로부터 여섯 개의 가시광선이 있다.

그 바깥으로 여섯 개의 연꽃잎을 한 모양을 이룬다. 중앙의 원은 불교의 진리인 동시에 무시무종의 뜻이다. 또 이 우주의 운행도 모두 원으로 운행되므로 법신비로자나가 곧 원이라는 뜻이요, 만다라를 윤원구족으로 표현한 대일여래는 곧 태양을 의미하므로 원에서 광명을 발하는 뜻으로 표시한 것이다.



대성사 육합상 육필 스케치

바깥의 여섯 연꽃잎은 불교의 교화를 표시하는 동시에 육자진언, 육바라밀, 육합, 육도, 육근, 육경, 육식, 육관음 등을 의미한다.

또 육자진언 중 ‘마니’는 원이요, ‘반메’는 연화이며,

원은 남성, 연화는 여성에 비유된다. 즉 남녀상교, 음양원융의 뜻이며, 원은 물질과 과학이다. 연화는 심성과 종교이다.

그러므로 물질과 마음이 다르지 않은 물심 불이의 뜻을 드러낸다. 원은 현실이며 연화는 진리를 나타내고 있다. 당상즉도 즉사이진 색심불이 번뇌가 즉 보리인 뜻이다.”

대성사가 내보인 육합상에는 새 종단의 교리가 그대로 담겨 있다. 비로자나불을 교주로 하고 관세음보살 본심진언을 본존으로 모신다는 뜻을 형상으로 보인 것이다. 그 자체로 만다라이며 법문이니 종지를 한눈에 드러내 보이고 있다. 육합상

에서 유래한 또 하나의 상징물이 원상이다. 원상은 태양과 우주, 곧 비로자나불을 나타냄과 동시에 윤원구족한 만다라를 상징한다. 둥글고 평등한 마음의 본성이자 분별과 대립이 없는 원융무애한 진리의 세계를 표현한다. 또한 비로자나불의 법계정인, 아미타불의 선정인 등 밀교의 수인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상징이다. 대일여래 비로자나 부처님의 원만한 본성 및 지혜와 자비의 광명을 두루 비춘다는 의미의 원상은 후에 종단 사원마다 세워졌다.

대성사는 창종을 두 달여 앞둔 10월 3일에 준제관음상의 조성을 시작했다. 이전과 다른 수행을 위해 육자 본심진언과 함께 중생의 의지처로 준제진언을 함께 행하는 것으로 수행의 상승을 도모했다.

청정한 마음의 근본자리이며 세간의 고통을 두루 구하시는 보살의 현신으로서 신앙의 대상으로 삼게 했다. 종단이 갖추어야 할 토대와 기둥이 망설임 없이 진행되었으니 그동안 심중의 고심이 얼마나 깊었는지 미루어 알 수 있는 일이다.

11월 11일 충청로, 현 관성사에 교도들이 모이니 앞으로의 불사와 의식에 대해 구상해 온 뜻을 밝혔다.



본존 육자진언_대성사 친필

“첫째, 본존은 육자대명을 봉안한다.

둘째, 불전 공양물은 헌화와 수향에 한하고, 정수와 촛불은 쓰지 않는다.

셋째, 법의의 의제는 신

라시대의 상의양식과 같이 깃을 밑까지 내려 만들고 소매는 작은 흥탁소매로 하며 색조는 백황홍흑의 네 가지 색으로 사종수법에 맞추어 착용한다.

넷째, 가사는 금가사로 한다. 흑자색지에 육합상을 세 곳에 백색으로 자수를 한다. 목에 걸면 뒤 항부에 육합상이 보이고 전면은 양 흥부에 육합상이 보이며, 규격은 폭은 두 겹으로 만들어 반을 접은 것이 6센티 5푼, 길이는 140센티미터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금가사와 법의에는 전면에 한 개씩의 4지결의 흑색 노끈으로 단추를 단다.”

부처님의 성도2

화령 정사

철학박사
법천사 주교
보디미트라 회장

7일 동안 해탈의 즐거움을 누리시던 중 7일이 지난 후 밤이 시작될 무렵에 연기를 순서대로 사유하셨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다.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난다. 즉 무명으로 말미암아 행이 있으며, 행으로 말미암아 식이 있으며, 식으로 말미암아 명색이 있으며, 명색으로 말미암아 육처가 있으며, 육처로 말미암아 촉이 있으며, 촉으로 말미암아 수가 있으며, 수로 말미암아 애가 있으며, 애로 말미암아 취가 있으며, 취로 말미암아 유가 있으며, 유로 말미암아 생이 있으며, 생으로 말미암아 늙음, 죽음, 근심, 슬픔, 괴로움, 번뇌가 있다. 모든 괴로움은 이렇게 생기는 것이다.

경전에서는 그 때에 깨달으신 내용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해탈의 즐거움을 누리시던 부처님께서서는 연기에 대해 사유하셨다고 합니다.

연기는 간략히 말하자면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이나 존재는 어느 것이나 원인에 의하여 생기는 것이며, 그러한 현상이나 존재는 그 원인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무명으로 말미암아 행이 있으며, 결국에는 늙고 죽는 모든 괴



로움이 있게 된다고 설명하신 것을 불교용어로 ‘십이연기’라고 합니다. 무명(無明)-행(行)-식(識)-명색(名色)-육처(六處)-촉(觸)-수(受)-애(愛)-취(取)-유(有)-생(生)-노사(老死) 등의 열두 항목이 연기로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생로병사의 근원적인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출가하신 부처

님께서 6년 동안의 목숨을 건 수행 끝에 깨달으신 것은 바로 이 법칙입니다. 그리고 12항목으로 이루어진 이 십이연기로써 우리의 모든 괴로움의 근원을 파악하신 것입니다. 그 근원이 무명이라는 것입니다. 무명이라는 것은 진리에 대한 근본적인 무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변화하는 것을 영원한 것으로 집착하는 어리석음과 절대적인 자아가 없음에도 그것을 있다고 집착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말합니다.

『자설경』에서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을 당시를 회상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내가 아직 깨달음을 이루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오직 이렇게 생각했다, 진실로 이 세상은 고통 속에 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고 병들고 죽어간다. 다시 태어난다 해도 이 고통을 벗어날 수 없고, 늙고 죽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 도대체 언제라야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고, 늙고 죽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깨달을 수 있겠는가?

비구들이여, 나는 또 그때 이렇게 생각했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늙고 죽음이 있는 것일까? 무엇에 말미암아 늙고 죽음이 있는 것일까?

비구들이여, 그때 나는 올바른 사유와 지혜로써 이렇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었다. 태어남이 있기 때문에 늙고 죽음이 있는 것이다. 태어남에 말미암아 늙고 죽음이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유추해간 결과 늙고 죽음의 괴로움은 결국 무명에 의하여 생겨난다는 것을 깨닫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즉 부처님께서 이렇게 사유하셨던 것입니다.

늙고 죽음의 괴로움은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이고, 우리가 태어난 것은 존재를 이루려는 작용인 유^有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또 그 유는 집착에 의하여 발생하며 집착은 가지려는 욕구인 애^愛에 의해 발생하며, 또 그 애는 느낌인 수^受가 있기 때문이고 수는 우리의 감각기관과 그 대상, 그리고 인식작용이 결합된 촉^觸에 의한 것이며, 촉은 우리의 여섯 가지 감각기관과 능력인 육처^{六處}가 있기 때문이며, 육처는 인식의 대상인 성·향·미·촉·법의 명색^{名色}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며, 이 명색은 식^識이라는 인식작용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이때의 식은 무명^{無明}이라는 진리에 어두운 잘못된 인식작용을 가리킵니다.

또 이 식은 행^行이라는 의지작용에 의하여 생긴 것이며 행은 무명으로 말미암아 있게 된 것으로 파악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무명으로 인해서 모든 괴로움이 발생한다는 십이연기의 공식이 세워진 것입니다.

〈다음호에 계속〉

욕망-다섯 가지 괴로움의 근원 ㉠

임진수

명상지도자협회 명상전문지도자
메디테이션 봄 명상센터 대표

사람에게는 다섯 가지 욕망이 있다. 오욕^{五慾}이라고 하며 이 다섯 가지 욕망으로 느끼는 즐거움을 오욕락^{五慾樂}이라고 한다. 다섯 가지 욕망은 식욕^{食慾}, 성욕^{性慾}, 수면욕^{睡眠慾}, 이익욕^{利益慾}, 명예욕^{名譽慾} 등이다. 이 중 앞의 세 가지는 생리적인 욕구이자 욕망이며 뒤의 두 가지는 사회적인 욕망이다. <지난호에 이어>

수면욕은 인간의 연속성을 위한 자존욕구이다. 잠은 의식을 쉬게 하고 몸을 쉬게 하여 자신의 에너지를 재분배 하여 다시 하루를 살아가도록 돕는다. ‘어제의 나’를 ‘오늘의 나’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육체는 휴식을 취하고, 의식의 일부분은 휴식을 통해 빈 공간을 만들어 주지만 다른 일부분은 자신을 확립하는데 쓰인다. 잠재의식 속에 자아를 확립해 나가는 것이다. 자아가 강해지는 것을 어리석음 혹은 무지한 상태라고 하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자아가 있다. 자신도 잘 알지 못하는 자아에 갇혀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고 나아가 고집한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에 대해 언제든 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타협하며 고집하지 않는다.



@photo by 이경진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세계에 갇혀 자신만 옳고 정의롭다고 생각하며 고집을 부리며 타협하려 하지 않는다. 수면욕은 단순히 잠을 많이 자고 싶어 하는 욕구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틀을 고집하는 어리석음을 포함하는 욕구이다. 이것을 치심^{恥心}이라고 부른다.

이에 더하여 사회적인 욕망인 이익욕과 명예욕이 있다. 이들은 유일하게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다.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동물 중에서 인간만이 갖는 특성이다. 수렵이나 채집에 의해 살아가는 거의 모든 동물과는 다르게 인간만이 농사를 통해 농작물을 경작하여 보관한다. 공동 경작과 공동 배분을 하는

초기사회에서는 이렇게 재물을 보관하는 것이 집단의 생존에 유리했을 것이다. 자연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지면서 인간의 인지능력이 더욱 높아졌을 것이다. 이런 인지능력의 향상은 개인 능력의 차이를 무시하는 재물(農作物)의 분배에 의문이 생겼을 것이다. 한정된 농작물이 풍족한 경우는 별 문제가 없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여한 것에 대한 보상 심리가 만들어지게 되고 불만이 생기게 된다.

이 과정에서 공정한 배분에 대한 기준이 변화하고 재물의 사유화가 진행되었을 것이다. 사유화가 진행되면서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생존에 유리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즈음 집단으로서의 인간이 아닌 개인으로서의 인간의 개념이 싹트게 되었을 것이다. 이는 곧 자아에 대한 인식의 출발점이었을 것이다. 자아의 확립은 손해와 이익에 대한 분별을 낳는다. 어떤 것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건지 손해가 되는 건지 따지게 되고, 이런 분별하는 마음은 내 자신의 마음을 갈라놓는다. 갈라진 마음은 각각의 번뇌를 가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생각이 쉬지 못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또한 이런 사유화에 의한 재물의 축적은 생존을 넘어 잉여의 재물을 이용하는 단계로 넘어가는데,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의 힘의 균형이 깨지게 되고 권력화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런 권력적 상하관계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더 자신의 영역을 확고히 하게 되어 자아에 대한 인식을 더욱 확립하며, 지배를 받는 자들도 권력을 추종하게 되면서 권력이 곧 명예가 되었을 것이다. 명예를 얻은 자는 진정한 자아를 잃어버리기 쉽다. 지위와 권력으로 자신을 포장해서 자신과 동일시한다. 이런 포장이 벗겨졌을 때 자존감을 잃고 허망함에 빠진다. 명예를 추구하는 자는 부러움을 넘어 시기와 질투라는 괴로움을 낳는다. 시기와 질투는 정상적인 노력으로 성취하려는 마음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위를 얻기 위해 비방과 중상을 일삼는다. 이렇게 비열하게 얻은 지위는 또 다른 비열한 자에 의해 파멸되기도 한다.

욕망은 인간에게 필수적인 요소이다. 욕망이 없는 사람은 없고 분별이 없는 사람도 없다. 하지만 과도한 욕망은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 정상적인 감정과 옳은 사고가 마비되어 욕망에 사로잡혀 자신을 잃게 된다. 욕망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은 욕망의 불꽃을 바라보면서 이용하기는 해도 그 불 속에 뛰어들지 않는다. 그렇게 욕망에서 한 발 물러서서 보도록 하는 것도 명상에서 얻는 이익 중에 하나이다.

미리 준비해 두어야

불교총지종 법장원

미란다왕이 나선에게 물었다.

“스님들은 과거의 괴로움을 버리기 위해 정진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미래의 괴로움을 막기 위해 정진하십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괴로움을 끊기 위해 정진하십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것처럼 애를 쓰십니까?”

“우리들은 ‘이 괴로움은 사라지고 저 괴로움은 생기지 말아주기를’하고 바라는 소원 때문에 노력합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괴로움은 있습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스님들은 지금 있지도 않는 괴로움을 버리기 위해 정진한다고 하니 지나치게 현명하십니까?”

“대왕은 일찍이 적과 대항하여 싸운 일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대왕은 그 때를 당하여 참호를 파고 보루를 쌓고 성문을 잠그



고 망루를 세우고 양곡을 마련하게 하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일은 모두 미리 준비하여 두었습니다.”

“대왕은 그 때를 당하여 비로소 말 타는 기병과 활 쏘는 병사들을 훈련시켰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미리 익혀두게 하였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하였습니까?”

“미래의 위험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미래의 위험이 지금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왕은 지금 존재하지 않는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그런 일을 하다니 매우 현명하십니까?”

“다시 다른 비유를 들어주십시오.”

“대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이 말랐을 때 비로소 우물을 파고 저수지를 만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모두 미리 준비하여 둡니다.”

“무엇 때문에 미리 준비합니까?”

“장차 갈증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목마름은 지금 존재합니까?”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왕은 지금 존재하지 않는 미래의 갈증에 대비한다니 지나치게 현명하십니까.”

“다시 한 번 비유를 들어주십시오.”

“대왕께서는 배가 고팠을 때 받을 갈고 씨를 뿌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미리부터 준비합니다.”

“무엇 때문에 미리 준비합니까?”

“미래의 배고픔을 막기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배고픔은 지금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왕은 지금 존재하지도 않는 미래의 배고픔을 위해 씨를 뿌린다고 하니 지나치게 현명하십니까.”

“스님, 잘 알았습니다.”

『미란타왕문경彌蘭陀王問經』

『광해군일기^{光海君日記}』는 조선의 역사를 기록한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이하 『실록』) 가운데 광해군(1575~1641, 재위 1608~1623) 시기의 역사를 편년체(編年體, 사실을 연월로 기술하는 편찬 방법)로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은 1624년(인조 2)부터 편찬이 시작되었고, 1633년(인조 11) 중초본^{中草本} 1부가, 이듬해 5월에 중초본을 검토하고 옮겨 쓴 정초본^{正草本} 2부가 완성되었습니다. 이후 『광해군일기』 중초본은 태백산 사고(경북 봉화)에, 정초본 2부는 정족산 사고(강화도)와 적상산 사고(전북 무주)에 1부씩 봉안^{奉安}되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광해군일기』(구4760)는 적상산 사고에 보관되었던 1책(권55-58)으로, 1612년(광해군 4) 7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의 기록을 담았습니다.

비운의 임금 광해군

광해군은 1575년(선조 8) 선조와 후궁 공빈 김씨(1553~1577)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왕세자로 책봉되어 전란의 수습에 힘썼으며, 1608년 선조의 뒤를 이어 조선 제15대 국왕으로 즉위했습니다. 광해군은

즉위 이후 대동법(大同法, 공물을 쌀로 바치게 하는 제도)을 시행하여 백성의 부담을 덜어주고,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는 외교를 펼쳤습니다.

그러나 임진왜란 때 소실된 궁궐을 무리하게 증건하거나, 왕권에 위협이 되는 계모 인목대비(仁穆大妃, 1584~1632)와 이복동생 영창대군(永昌大君, 1606~1614)을 숙청하는 등 당시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무리한 정치적 행보를 보였습니다. 결국 광해군은 1623년 인조반정으로 폐위되어 강화 교동도와 제주도에 유배 생활을 했고, 1641년(인조 19) 67세로 유배지 제주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광해군은 반정으로 물러났으므로 사후 임금에게 주어지는 묘호(廟號)를 받지 못했습니다. 남양주에 위치한 묘도 다른 왕릉보다 규모가 작고, 묘역을 수호하는 석물(石物)도 조성되지 않았습니다.

『광해군일기』의 봉안과 전래

『실록』은 임금의 재위 기간에 기록한 사초(史草)와 관청의 기록을 정리한 시정기(時政記) 등을 바탕으로 초초·중초·정초 등의 단계를 거쳐 만들어집니다.

『실록』이 편찬되면 국가의 기밀 누출을 막기 위해 초초본과 중초본을 없애는 세초(洗草)를 하고, 정초본을 인쇄해 각지의 사고에 보관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광해군일기』, 조선 1634년, 44.5×31.0cm, 국보, 구4760(국립중앙박물관, 허문행 큐레이터 추천 소장품)

1634년(인조 12) 『광해군일기』 정초본 2부가 편찬되었으나 조정의 여러 사정으로 인쇄하지 못했고, 중초본과 정초본을 임진왜란 이후 새로 지은 정족산·태백산·적상산 사고로 옮겨 봉안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사고가 철폐되자 『광해군일기』 정초본 1부(적상산 사고본)는 창경궁 장서각으로, 또 다른 정초본 1부(정족산 사고본)와 중초본(태백산 사고본)은 경성제국대학(광복 이후 서울대학교)으로 옮겨졌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서울대학교에서 보관하던 『실록』은 부산으로 옮겨졌으나 장서각의 『실록』은 미처 옮기지 못했고 결국 북한군이 평양으로 옮겨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광해군일기』의 내용과 특징

1973년 국내에 현전하는 『실록』이 국보로 지정되었으나, 이후 국보 지정에서 빠진 『실록』이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2017년 문화재청의 정밀 조사를 통해 국립고궁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등에서 96책의 『실록』이 확인되어 2019년 국보로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광해군일기』는 권55-58에 해당하는 1책으로, 1612년(광해군 4) 7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의 정치·외교 등 현안이 자세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책의 앞면에 ‘이왕가 도서지장^{李王家圖書之章}’과 ‘무주 적상산사고 소장^{茂朱赤裳山史庫所藏} 조선총독부 기증본^{朝鮮總督府寄贈本}’ 등의 소장인^{所藏印}이 남아 있어 적상산 사고에 봉안한 정초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광해군일기』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성종실록』·『인조실록』·『효종실록』과 함께 그동안 국내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던 적상산 사고본 『실록』의 존재를 일부나마 확인시켜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내실에 부끄러운 점이 없다면 이름은 빌려와서 붙여도 문제될 것이 없다.

實之苟無所媿，名或借儗而無嫌。

실지구무소괴, 명혹차의이무협.

- 조귀명^{趙龜命}, 『동계집^{東谿集}』 「왜려설^{倭讒說}」

얼마 전 서울 모처의 아파트 단지로 이사한 선배가 해 준 이야기이다. 선배가 사는 단지와 바로 옆 단지는 여러모로 조건이 비슷하고 집값도 비슷했다고 한다. 그런데 옆 단지가 이름을 ‘고급스럽게’ 바꾼 뒤로 집값이 훌쩍 뛰어버렸고, 이에 자극을 받은 선배 단지의 주민들이 우리도 바꾸자며 들고 일어나서 반상회와 ‘주민단톡방’이 조용할 날이 없다고 한다.

요즘 전에 없이 길고 화려한 이름을 가진 아파트가 자주 보인다. 지역명과 건설사 브랜드명 사이에 ‘퍼스트’, ‘센트럴’, ‘프레스티지’, ‘팰리스’, ‘로얄’ 등과 같은 고급스러운 수식어를 몇 겹

으로 채워 넣은 거창한 이름들이다. 많게는 총 25자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하고, 한편에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있다 한다. 개인적으로는 어릴적 개그프로에서 들었던 ‘김수한무거북이와 두루미삼천갑자동방삭....’이 생각난다. 자식이 요절할 운명이라는 점쟁이의 말을 듣고 장수를 위해 지어준 이름이다.

「왜려설^{後臚說}」에서 유생 하징은 자신이 말을 타고 서울로 올 때 있었던 일을 조귀명에게 말해준다. 하징의 말은 체구가 작아 말인지 나귀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700리 길을 사람을 태우고 4일 만에 주파할 정도로 훌륭한 말이다. 오는 길에 사람들이 말이나 나귀나 하도 묻자 장난기가 발동한 하징은 일본에서 들여온 왜나귀라고 답하였고, 이에 혹한 사람들이 큰돈을 주고서라도 사겠다고 달려들었다. 하징은 결국 거짓이었음을 실토했고, 사람들은 실망하여 더 이상 돌아보지 않고 떠나버렸다. 이 이야기를 조귀명에게 하면서 하징은 내실은 보지 않고 이름에 속아 넘어가는 세태가 심각하다며 한탄을 한다. 조귀명은 한편으로는 수궁하면서 한편으로는 다소 독특한 의견을 제시한다.

말이라는 것이 참으로 천리를 가는 능력이 있다면 오추^{烏騶}나 적토^{赤兔}라고 이름을 붙여도 되고, 삼만리를 가는 능력이 있다면 녹이^{綠駟}나 황도^{黃駟}라고 붙여도 된다. 어찌 특별히 왜나귀라는 이름



뿐이겠는가. 내실에 부끄러운 점이 없다면 이름은 빌려와서 붙여도 문제될 것이 없다.

오추, 적토, 녹이, 황도는 모두 전설적인 명마들이다. 조귀명은 어떤 말이 정말 뛰어나다면 피 한방울 섞이지 않은 명마의 이름을 붙여도 괜찮다고 말한다. 왜일까. 하징의 말은 좋은 말이었다. 누군가 ‘왜나귀’라는 이름에 속아 샀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모를 때 때 순간이 감동이 된다

법상 스님

부산 대원정사 주지
유튜브 '법상스님의 묵탁소리' 운영자
마음공부 공동체 '묵탁소리' 지도법사

손해 볼 일이 없다. 파는 쪽의 입장에서만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름을 속였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이름에 속아 사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경우이다. 하징의 속임수는 이름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까지 포함하여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속임수였으며, 조귀명은 이를 사실상 속임수가 아니라고 주장하기까지 하였다. 속임수를 권장하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지만, 그가 중시한 것은 이름에 상관없이 내실을 기하는 것이다.

요즘 아파트와 관련된 또다른 이슈는 부실시공이다. 유명 건설사의 이름을 걸고 만들어진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실이 대거 발각되었다. 건물의 뼈대에 해당하는 철근이 누락된 것을 두고 사람들은 건설사 브랜드명에 '순살'이라는 불명예스러운 호칭을 덧붙였다. 조롱을 담은 이 이름이 그 어떤 거창한 이름보다도 내실을 잘 담아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조귀명은 같은 글에서 또 이렇게 말했다.

진짜 속임수는, 오로지 시장에서 채찍에 치자물과 밀랍을 발라 5만금에 파는데 한 번 치면 부러지는 그런 것이다.

치자물은 노란색이고, 밀랍은 매끄럽고 윤기가 난다. 치자물과 밀랍을 바른 이 물건의 이름은 아마도 '황금채찍'이었을 것이다.

한 절에 오래도록 다니시는 분들을 뵈면, 자기 절에서 했던 방식, 의식, 의례, 기도 등에 사로잡혀서 그것만이 옳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내가 많이 안다. 내가 절에 대해서 많이 안다'라는 어떤 자기 생각에 집착하기 쉽겠죠. 그러나 사실은 불법은 무유정법^{無有定法}입니다.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사사로운 부분에서는 사실 이렇게 해도 괜찮고, 저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정성이 중요하고 마음이 중요하지 걸모습이나 의례의식 같은 것에 크게 얽매일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얼마 전에 제가 만난 스님이 한 절에 주지로 가셨는데, 그 절의 보살님들이 기존에 해 오던 의식이며, 수행법이며, 방식을 하도 고집하면서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아시길래 그 생각이 하나의 고집임을 알려드리는데 피나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하시더군요. 예를 들어 천도재를 하는데, 아주 그럴싸하게 많은 음식을 차려 놓고, 막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씩 염불을 하면서 여러 스님들 모시고와서 바라춤도 추고 하면서 막 그냥 그럴싸하게 있어 보이는, 그렇게 해야만 천도가 되느냐? 그렇게 해야만 천도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여기겠죠. 그러

면 어쩔 수 없이 거기 맞춰줘야 되겠죠.

그런데 선방에 계시는 스님들이나 요즘의 선원 등에서는 간소하게 음식을 차려 놓고 그저 좌선을 하거나, 혹은 의식을 간소하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의 49재가 너무 형식적이고, 돈도 많이 들고 그런다는 지적들로 인해 스님에 따라서는 간소하고 소박한 방식으로 정성스럽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무엇이 되었든 과거부터 내려오는 것이라고 그것이 무조건 다 옳다고 집착하거나, 특정한 방식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활짝 열린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려면 내가 안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아상 대신에 ‘모른다’ 하고 들어가는 것이 불법 공부의 자세입니다. ‘안다’하는 순간 벌써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안다’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는 건 어때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는 건 안 배우죠. 배우려는 자세가 사라집니다. 무엇이든 내가 ‘안다’라고 하고 들어가면 대충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해요. 눈이 올 때, 아이들이, 아들, 딸이 “아버지, 어머니 눈이 와요” 이러면서 막 신나 있을 때, “응, 그래 알았어” 하고 말죠. 별 관심이 없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나도 다 알아, 눈 오면 어떤 건지 안다는 것이죠. 안 봐도 다 알아 라고 생각하면 그 눈이 오는 날의 감동을 두 번 다시 느낄 수 없습니다.

어릴 적에 첫 마음으로 느낄 때 너무 새롭잖아요. 근데 그 첫 마음으로 느끼는 감동을 평생을 이제 못 느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봄이 와도 봄이 오는 줄 모르고, 낙엽이 떨어지고 단풍이 들어도 단풍이 드는 아름다움을 모르고, 눈이 와도 눈 오는 아름다움을 모르고 사는 그런 사람으로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안다고 생각하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모른다고 생각하면 매사를 난생 처음 보는 것처럼 새롭게 관찰하게 됩니다.

분별심을 다 내려놓고 과거에 내가 이미 안다라고 했던 모든 생각과 기억과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난생 처음 보는 것 같은, 오직 모르는 마음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식이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부모님은 잘 몰라요. 내가 나 자신도 알지 못하는데, 내가 타인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얼마나 무한한 보석 같은 것이 들어있는지를 모릅니다. 모른다고 할 때만 그 보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아는 범위 내에서만 행동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자기 안에서 찾지 못합니다. 모른다고 할 때 오히려 더 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깨달음도 마찬가지로. ‘이렇고?’는 곧 ‘모른다’는 뜻이거든요. 그 어떤 분별망상이 ‘모를 뿐’이 되었을 때 전부를 깨닫게 됩니다.

우수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시기로 어린 새싹이 하나둘 움트기 시작한다. 우수는 입춘 후 15일 후인 양력 2월 19일 또는 20일 경에 해당한다. 우수가 되면 날씨가 많이 풀려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한다. ‘우수’는 한자로 비雨와 물*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추운 겨울 꽁꽁 얼었던 얼음이 녹아내려 물이 되고, 눈이 녹아 비가 된다는 말로 이제 곧 추웠던 겨울이 가고 따스한 봄을 맞이하게 됨을 뜻한다. 입춘은 이제 막 봄에 들기 시작한 느낌이라 아직까지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때이지만, 우수는 꽃샘추위마저 잦아들기 시작하고, 완전한 봄이 찾아옴을 알리는 시기이다.

옛날 중국에서는 우수 입기일 이후 15일을 세분하여 그 특징을 나타냈다. 처음 5일간은 수달이 물고기를 잡아다 늘어놓고, 다음 5일간은 기러기가 북쪽으로 날아가며, 마지막 5일간은 초목에 싹이 튼다고 했다. 우수 무렵이면 겨우내 얼었던 강이 풀림과 동시에 수달이 물 위로 올라오는 물고기를 잡아 먹이를 마련한다. 또한 추운 지방에 서식하는 기러기는 따뜻한 봄기운을 피해 다시 추운 북쪽으로 날아간다. 봄기운이 완연해지면 마지막 5

일간은 사방의 풀과 나무에서 새싹이 돋아나게 된다.

우수에는 따뜻한 날씨를 비유한 여러 속담 있다. 먼저 ‘우수 뒤의 얼음같이’라는 속담이 있다. 절기상 양력 2월 19일경에 해당하는 우수에는 따뜻한 봄기운이 돌아 겨우내 잠들어있던 초목이 깨어나고, 새로운 생명들이 움트는 시기이다. 그런 따뜻한 ‘우수’가 지난 후의 얼음은 이미 녹아 없어졌거나, 슬슬 녹아 없어질 것이다. 따라서 ‘우수 뒤의 얼음 같이’는 우수가 지나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음을 알 수 있는 속담이다.

농경사회에서 비는 소중한 존재다. 물이 없다면 작물이 클 수 없고, 물이 없다면 대지도 사람도 말라간다. 우수가 다가오면 옛 농민들은 논과 밭두렁을 태웠다. 본격적인 농사준비를 시작하는 것인데 병충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조들의 지혜였다. 요즘은 농약의 사용과 화재예방으로 논밭을 태우는 옛 풍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래도 지역 곳곳에서는 액운을 막으려는 작은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다.

우수는 봄이 완연해지는 시기이다. 따뜻한 봄의 기운이 겨우내 얼어있던 천지만물을 녹이며, 겨울 추위에 얼어붙은 중생들의 마음을 녹여주기를 바라 본다. 마음만은 따뜻할 수 있게 가족과 함께 오손도손 모여 따뜻한 음식을 나눠 먹었으면 좋겠다.

냉동 밥을 데우다

오대혁

동국대학교 고전문학 전공
 시인, 문화비평가
 논문 및 저서 <원효설화와 미학>
 <금오신화와 한국소설의 기원>
 공동 시집<시의 끈을 풀다>

냉동실에서 얼어 죽었던 밥이 가쁜 입김을 내쉬며 살아났다
 떠나는 날을 두고 사흘간 곡기를 끊었던 할머니가 떠올랐다
 겨울 수숫대 같은 몸은 푸석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먹는 일이 사는 일이라며 4:3 난리 때 파래 섞은 밥을
 질경질경 소처럼 되씹던 할머니가 떠나던 날 곡기도 잇은 채
 곡을 하던 스물에 시집온 며느리는 어느새 곡기도 까먹고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시간을 시어미처럼 질경질경 씹고 있었다

한라산에서 방목하던 소들은 먹는 일로 하루를 보냈다
 흑도야지는 먹기 위해 좁은 통시를 수십 바퀴 돌고 돌았다
 석수장이 하르방은 먹기 위해 돌담 발담 수천 리는 쌓았다

꿈은 젊음을 먹는 고목입니다
 희망은 고통을 먹는 수선화입니다
 삶은 먹다 시들어 물 되고 뼈 되고 흙 되어 그대에게 가는
 나그넷길입니다

만날 날이 저물녘 노을처럼 점점 짧아져만 가는 시간을 두고
 얼어붙은 밥을 데우고 식어버린 찌개를 다시 덥히다
 나는 퍼뜩 잠을 깬다 얼었던 눈물이 매달렸다 하롱하롱



©Photo by 오대혁

사자성어는 풍년인데...

이옥경

수필가 · 방송작가

- 1984년 KBS 라디오 드라마 당선
- 1985년 문예지 '한국문학' 수필부문 신인상 당선
- 2013년 백교문학상 수상
- 한국문인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회원

연초가 되면 교수신문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한 올해의 사자성어를 발표한다. 2023년을 돌아보는 사자성어로는 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잇는다는 뜻을 지닌 '견리망의(見利忘義)'가 선정됐다. 견리망의는 장자(莊子) 산목편(山木篇)에 나오는 말로, 장자가 조릉(彫陵)의 정원으로 사냥을 갔다가 얻은 깨달음에서 비롯된 말이다. 장자가 까치를 향해 활을 겨누고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임에도 까치는 미동조차 없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장자가 자세히 살펴보니 까치는 사마귀를 잡기 위해 정신을 쏟고 있었고, 까치가 그러하듯 사마귀 역시 매미를 노리느라 자신에게 닥친 위험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까치와 사마귀가 당하게 될 결과는 생명과 직결될 만큼 엄청난 것이었다. 이익에 눈이 어두워 더 큰 것을 놓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도 잠깐, 정원관리인이 나타나 정원에 함부로 들어온 장자를 책망했고, 장자 역시 까치나 사마귀나 매미처럼 사냥이라는 눈앞의 이익을 좇느라 자신의 입장을 미처 헤아리지 못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됐다는 얘기다.

눈앞의 이익을 보면 취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건강

하고 건전한 것이라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꼭 나쁜 일만은 아닐 터. 견리망의는 모든 일의 기본적인 원칙과 도덕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 인간적인 관계도, 사회적인 신뢰와 정의도 무너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말이다. 사람의 도리보다 눈앞의 이익을 따른다? 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잇는다? 이기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 이쪽저쪽 눈치만 살피며 쫓대 없이 남의 의견을 따르고, 이익을 위해 서라면 부끄러움도 없이 이리 붙고 저리 붙는 못 인사들의 진면목을 투영하는 말인 것 같아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다.

이와는 반대되는 뜻을 지닌 견리사의(見利思義)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논어 현문편(憲問篇)에 나오는 이 말은 안중근 의사의 평생 좌우명이었던 '견리사의 견위수명(見利思義 見危授命)'으로 더 널리 알려져 있다. 이로움을 보았을 때는 정의를 생각하고 위태로움을 당했을 때는 목숨을 바치라는 글귀에서 묻어나는 이 묵직한 울림이 전하는 것은 의로움을 먼저 생각하고 따른다는 굳센 다짐이며 그것을 실천하는 살신성인의 자세다. 견리사의라는 글귀가 담긴 유묵(遺墨)이 그러하듯 안중근 의사가 뒤편 감옥에서 남긴 유묵 57점에는 하나같이 '대한국인 안중근 서'라는 서명과 함께 무명지 한 마디가 없는 손바닥 도장이 찍혀 있다. 거슬러 올라가면 이 손바닥 도장에는 1909년 2월 저 먼 러시아 연추에서 김

기룡, 강순기, 정원주, 박봉석, 류치홍, 조응순, 황병길, 백규삼, 김백춘, 김천화, 강창두 등 11명의 동지들과 왼쪽 무명지 한 마디씩을 잘라 그 피로 태극기에 대한 독립 네 글자를 쓰며 하늘과 땅에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칠 것을 맹세한 동의 단지회(同義斷指會)가 있다. 안 의사의 상징적인 표식과도 같은 이 손바닥 도장에서 느껴지는 건 나라를 향한 뜨거운 충정과 간절한 마음이다. 그래서일까. 그것이 무엇이든, 정의보다 이익을 앞세우고 그것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많은 이들의 견리망의가 더없이 부끄럽고 참으로 면목 없다.

대립과 갈등, 분열과 불통의 현주소는 2022년 과이불개(過而不改), 2021년 묘서동처(貓鼠同處), 2020년 내로남불 등 최근 몇 년간의 사자성어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과이불개, 고양이와 쥐가 같이 살고 있는 것처럼 도둑을 잡아야 할 사람이 함께 도둑이 된 경우를 이르는 묘서동처,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는 아집과 독선을 꼬집으며 은근슬쩍 사자성어의 반열에 끼어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로남불... 이들 사자성어가 만들어지는 데는 눈 가리고 아웅, 옆치도 미안함도 없이 잘못은 네 탓이요, 내 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것이라며 주머니를 챙기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더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 양심이나 소신 따위는 일찌감치 내팽개친-부끄

러움과 답쌓은 지 오래인 한심하고 뻔뻔한 정치권이 큰 몫을 했으니...

양약고구(良藥苦口)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했다. 수오지심(羞惡之心)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착하지 못함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삼성오신(三省吾身) 매일 세 번 자신을 반성하면서, 백배사죄(百拜謝罪) 거듭 절하며 잘못에 대한 용서를 빌고, 개과천선(改過遷善) 지난 잘못이나 허물을 고쳐 올바르게 착하게, 망신망가(忘身忘家) 자신과 집안일에 앞서 오직 나라와 대의를 위해 헌신하는 위정자들이 속속 생겨나 앞으로는 희망 가득한 사자성어가 속속 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 그것도 지나친 욕심일까.

교수신문이 내놓은 사자성어가 지난 한 해의 시류에 대한 냉철한 비판을 담은 것인 데 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놓은 사자성어는 대부분 새해의 정책이나 나아갈 방향, 각오 등을 제시하고 변화와 결속을 다짐한다.

새해 아침, 울릉도를 제외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 축전에서 발표된 포항시의 신년 사자성어는 약진대망(躍進大望). 50만 포항시민들은 물론 우리 모두가 희망찬 미래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자

는 의미로 해석된다. 128년 만에 특별 자치도로 바뀌는 전라북도
 출범 원년을 맞아 백 년을 내다보는 큰 계획으로 도정 성공의 밑그림을 그리겠다는 포부를 담은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이에 앞서 2023년 특별 자치도가 된 강원도에서는 달리는 말은 말굽을 멈추지 않는다는 마부정제(馬不停蹄)를 제시하며 지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꾸준히 정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지난해 100만 인구를 달성하며 2025년 우리나라에서 다섯 번째로 특례시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는 화성시의 만천명월(萬川明月)은 밝은 달이 모든 냇물에 그 빛을 골고루 비추듯, 100만 시민 모두의 희망이 이뤄질 수 있는 시정을 펼쳐달라는 염원을 담아 시민들이 정한 사자성어라 더욱 뜻깊다.

적습성성(積習成性), 습관이 인간을 만들고 일룡일저(一龍一豬), 노력과 배움에 따라 하나는 용이 되고 하나는 돼지가 된단다. 아무리 웅대한 사자성어라도 유야무야(有耶無耶) 있는 듯 없는 듯 흐지부지함), 유명무실(有名無實) 이름만 그럴듯하고 실속은 없음), 지리멸렬(支離滅裂) 이리저리 찢기고 흩어져 갈피를 잡을 수 없음이 될 수도 있다. 불가의 가르침이 담긴 소욕지족(小欲知足) 적은 것에 만족하라, 과욕을 버려라), 조고각하(照顧腳下) 그대 발밑을 보라, 낮은 자세로 자신을 돌아보라), 제악막작(諸惡莫作) 모든 악행은 절대로 저지르지 말라)을 행한다면 선용기심(善用其心) 마음을 착하게 쓰면 자신은 물



론 남도 사회도 모두 행복해진다)은 저절로 이루어지겠지만 말이다.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중략) 그때가 언제이든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가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라는 정채봉 시인의 ‘첫마음’이라는 쇠구처럼 노적성해(露積成海), 이슬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루고, 우보천리(牛步千里), 우직한 소의 걸음으로 천리를 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광명을 깊어지고

지장 스님

청주 용화사 연수원장

일본에 ‘이야기 합시다’라는 한 작은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이 모임의 회원 자격은 50세 이상이며 5년 동안 매년 한 가지 외국어를 공부하여 다섯 개 국어를 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 모임의 회원이었던 한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오랜 세월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50살이 넘어서면서 갱년기 장애로 인해 여러 가지 신체적인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55세에 퇴직을 하고 자신의 신체적 고통을 줄이기 위해 여러 치료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때 그녀의 한 친구가 ‘이야기 합시다’라는 모임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었고 재미 삼아 한 번 가보았습니다. 이 모임에 가입한 그 할머니는 중학교 수준에서부터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여 1년 안에 영어 자격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고무되어 다음에는 포르투갈어에 도전하여 어학 공부에 더욱 재미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딸이 브라질에서 온 남자 동료를 데

리고 왔는데 비자에 문제가 있어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약간의 포르투갈어 실력밖엔 없었지만 최대한 노력하여 그 젊은이를 도와주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비슷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이 할머니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점차로 이 할머니의 집은 중남미에서 온 사람들의 아지트가 되어 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니 그동안 자신을 그렇게 괴롭혀 왔던 두통이나 요통, 어깨 결림 등의 신체적 고통이 모두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진 결과 모든 호르몬 분비가 정상이었고 그녀의 얼굴 빛깔도 아주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까지 나와 가족밖에는 모르고 살았는데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로부터 감사를 받는 것이 아주 기쁘다. 삶의 방식을 바꾸고 나서부터 내 몸 안에 젊고 새로운 누군가 들어와 있는 느낌이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삶을 즐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일본 할머니의 경우 본인이 의도적으로 어떤 긍정의 마음을 먹진 않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마음속에 남을 도울 수

바이러스만이 아니라 정서도 전염된다?

하현주

동국대학교 선학 전공
서울대학교 심리학 박사
한국상담심리학회 공인 상담심리사

있다는 기쁨과 자신감을 가지고 다녔기 때문에 병도 없어지고
얼굴이 밝아지는 변화를 체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속에 어떤 짐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스스로 의식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마음속의 짐은 내용에 따라 삶의 무게를 무겁게 하기도 하고
때론 가볍게 하기도 합니다. 그 마음 속 짐은 내 탓이든 남 탓
이든 분명 어떤 원인에 의해 처음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짊어지고 가는 것은
결코 남 탓이라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하고 있을 뿐
입니다. 남을 원망하는 마음은 자기 짐의 무게를 더욱 무겁게
할 뿐입니다. 용서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을
향해 사랑의 마음을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괴롭지 않기를” “나로부터 모든 근
심과 미움이 사라지기를” 마음의 무게 늘리기를 멈출 수 있게
되면 그 때 자신만의 긍정에너지를 품고 마음과 삶의 무게를
가볍게 하는 길을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큰 혼란을 겪었다. ‘전염’이라
는 말이 참으로 지긋지긋한 말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 ‘전염’이라
는 불편한 단어를 또다시 마주해야 하는 이유는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것처럼 마음을 보호하
기 위한 방역에도 주의를 쏟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방역의 노력들이 모두를 함께 보호하기 위한 것인 것처럼, 마음의
방역에서도 자신과 남의 마음을 함께 돌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염되는 것이 바이러스만이 아니라면, 우리의 감정도, 행복도
고통도 전염될 수 있다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은 어떻
게 변할까? 정서전염이라는 현상은 찰스 다윈, 칼 융과 같은 대
가들에 의해서도 일찍이 주목된 바 있으며 최근 신경과학과 다
양한 실험 방법을 통해 활발히 입증되기 시작했다. 공감 및 정서
전염에 관한 신경학적 연구들은 개인의 감정이 한 개인에게만
속해있다는 개체주의적 세계관에 반기를 들기 시작했다.

마치 개인의 감정은 개인의 몸이라는 항아리 안에 담긴 물과
같아서, 그것을 쏟지 않는 이상 다른 항아리 안에 담길 수는 없
다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었다. 그러나 실상 개인의 정서라는 것



은 나와 타인이 함께 공유하며 숨 쉬고 있는 대기와의 같아서, 내가 숨을 들이마시면서 내 안에 들어온 공기를 나만의 것이라 할 수 없듯이 정서 또한 명확히 구분될 수 없기란 마찬가지이다.

신경학적 연구 결과들을 간단히 요약해보면, 개인이 경험하는 정서가 미처 알아차리지도 못할 만큼 아주 짧은 자극에 의해서도 자동적으로 타인에게 전달될 수 있으며, 타인의 표정 뿐 아니라 몸짓과 심지어 인간의 형태를 한 기호들의 움직임조차도 개인의 정서를 촉발할 수 있다고 밝혀져 있다. 즉, 잠깐 본 듯 만 듯 스치고 지나가는 타인의 표정으로도, 기운 없이 걸어가는 뒷모습만으로도 우리는 상대방의 감정을 공유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이것은 나의 고통이다', '그것은 너의 고통이다'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어떤 정서를 함께 공유하고 있는가.'일 것이다. 정서전염을 연구하는 심리학자 도허티(Doherty)에 따르면, 정서전염은 전염되는 정서에 따라 긍정 정서전염과 부정 정서전염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시카고 대학의 카시오포(Cacioppo) 교수는 부정적 정서가 긍정적 정서보다 전염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슬픔이나 공포와 같은 부정적 정서는 기쁨과 같은 긍정 정서보다 인간의 생존 본능에 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감

정 표출도 더 크게 나타나고, 주위 사람들도 자신의 생존 위협을 감지하기 때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가령, 자녀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면 기뻐하는 동료들 보며 함께 마음이 기뻐다가도, 직장 상사가 팀원들에게 ‘월급 받으면서 하는 게 뭐가 있냐.’고 화를 내는 순간, 부서 전체의 분위기는 어둡게 물들고 만다. 실제로 긍정적 정서를 표현하는 리더의 집단에 속한 구성원들은 집단의 협력도가 증가하고 갈등이 줄어들었으며, 집단의 성과 또한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또한 기숙사에서 한 방에 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우울한 학생의 경우 우울한 기분뿐만 아니라 우울증을 유발하는 인지적 취약성까지도 다른 학생에게 전염되었다는 연구결과는 우리가 삶의 매 순간 다양한 정서들을 시시각각 주고받으며 뒤섞인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정서전염이 발생하는가? 인간의 정서는 인류 공동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진화해왔기 때문에 정서적 이해와 소통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정서전염은 이러한 정서적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데 있어, 언어적 소통보

다 더욱 효과적이고 빠른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는 진화적 이점을 지닌다.

아이를 잃고 비통해하는 부모를 보면서, 왜 슬픈지 묻거나 사유과정을 통해 이해하는 것보다, 그 슬픈 얼굴을 보는 순간 슬픔에 전염되어 함께 느끼는 것이 훨씬 더 빠르게 상대를 이해하는 길이 되기 때문이다. 즉, 정서전염은 자신의 신체적 정서적 각성이라는 내적 경로를 통해 타인을 즉각적으로 이해하려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서적 상호의존성은 인간의 정서가 한 개인에게만 귀속되지 않고, 상호의존적으로 발생한다는 사실을 드러내 준다. 이는 불교의 무아^{無我}의 관점과도 정확히 일치한다. 이 고통을 경험하는 것이 ‘나’이고, 이 고통은 ‘나의 것’이라는 인간의 뿌리 깊은 자기중심적, 자기몰입적 사고는 정서적 상호의존성의 맥락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함께 이 고통을 경험하고 있고, 고통의 경험에는 ‘나의 것’도 ‘너의 것’도 따로 있지 않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어떤 고통을 함께 경험하고 있는가?

그냥 누리기

유소림

서강대학교 영문학과 졸업
한국여성민우회 편집실장
주간 내일신문, 미즈엔 편집위원 역임
『녹색평론』 시와 산문 발표 다수
저서 <신주쿠 시공쥐 비둘기>, <퇴곡리 반딧불이> 등

아기의 첫 번째 생일상. 정성어린 음식 외에도 책, 돈, 실타래 등등이 올라 있다. 아기가 책을 잡으면 학자가 될 것이고, 돈을 잡으면 부자가 될 것이며, 실타래를 잡으면 긴 수명을 얻을 것이다. 사람들은 아기의 재롱을 보며 미래를 축복한다.

우리는 인생을 당연히 무언가를 이루고 소유하는 과정으로 생각한다. 그 ‘소유’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 인류사는 소유를 둘러싼 치열한 다툼의 과정이었다. 고대나 중세는 그냥 두고 사람들이 제법 ‘개화’되었다는 시절을 보아도 끔찍하다. 아메리카 대륙을 소유하기 위해 ‘문명인’들은 원주민을 궤멸에 이르도록 학살하였다. 열강들은 앞다투며 아프리카, 아시아라는 먹이를 서로 빼앗는 과정에 1차,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 아기가 잘 자라서 좋은 것들을 많이 이루고 소유하기를 축원하는 소박한 마음들이 인류사의 수없는 전쟁과 관계없지 않다고 생각하니 무어라 할 수 없이 가슴이 먹먹해진다.

인류의 스승인 성인 가운데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들은 어째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리고 장가가고 시



집가는 것만 생각하느냐. 또 다른 성인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참다운 도란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인생은 먹고 마시고 하는 세속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말씀이다. 그런 인생살이를 위한 ‘내 것’ 다툼,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리에 해탈에 이르는 길이라는 말씀이다.

이 존재계는 싱싱하게 살아서 끝없이 변해간다. 이 법칙을 철저히 이해한다면 그 무엇도 끝내 소유할 수 없음이 확연하다. 이

몸뚱이조차 소유할 수가 없이 언젠가는 필히 벗어야 하지 않는
가. 끝없는 흐름 속에서 소유는 눈 위의 발자국만큼도 버티지 못
한다. 욕망이 부도덕하므로 버리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초
부터 불가능하다. 이것을 사무치게 깨달아 소유에 집착하지 않
는 것이 참다운 도리라는 말씀이다.

우리의 세계는 그 어떤 소유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누릴 것은
무진장이다. 우리는 타인들을 해치지 않고도 하늘의 끝없는 푸
르름과 해와 달과 별, 그리고 구름을 사랑하고 찬탄하며 우리의
혼을 고양할 수 있다. 우리는 봄을 소유하지 않고도 그이가 산천
에 불려일으키는 아름다운 기적들을 고스란히 맛볼 수 있다. 떡
하나라도 나누면 기쁨이라는 축복이 그냥 솟아난다. 우리의 세
계는 신비무궁한 기적들로 가득하다.

진정 '내 것'으로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존재계에서는
'나'라는 이름을 위시한 모든 것이 원천적으로 소유할 수 없는 것
이라는 자각이다. 이 자각이 깊이 스며들면 소유에 매달리기 보
다는 그냥 주어진 수없는 것들을 온전히 누리는 능력이 풍성해
진다. 그중에도 최고의 것은 본래 자유한 이 마음을 그냥 누리는
것이다. 이 무한해탈은 어떤 성취로도 이룰 수 없다. 그것은 성취
욕을, 소유욕을 내려놓으면 저절로 드러나는 무한보無限寶다.

혼기를 한참이나 넘긴 딸을 둔 박씨 성을 가진 나무꾼이 있
었다. 금년에는 어떻게 하더라도 시집을 꼭 보내려 했는데 또
한해가 속절없이 흘러 나이를 한 살 더 먹게 되니 박 씨는 늘
안타까워하고 있었다.

사실 이렇게 딸의 혼기를 놓친 것은 따지고 보면 딸의 탓이
아니라 가난 탓이었다. 일 년 열두 달 명절이나 폭우가 쏟아지
는 날을 빼고는 하루도 빠짐없이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서 시
장에 내다 팔았지만 세 식구 입에 풀칠하기도 버거웠을 정도로
가난했기 때문이다. 세상에 법 없어도 살아갈 착한 박 씨는 한
평생 배운 것이라고는 나무장사뿐인데 요즘은 몸도 젊은 시절
같지 않아서 나뭇짐 멍치도 점점 작아져서 걱정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 평평 내리던 날 지게에 도끼와 톱을 얹고
화력 좋은 굴참나무를 찾아 헤매던 박 씨는 힘이 들어 쉬고 있
었다. 이때 새하얀 눈 위로 새빨간 산삼 열매가 보석처럼 빛나
는 것이 아닌가? 박 씨는 기쁨에 겨워 산삼을 캐보니 무려 120
년이나 된 동자삼이었다. 박 씨가 120년이나 된 산삼 한 뿌리

를 췌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지자 저갓거리의 약재상이 찾아왔다.

“박 씨 산삼을 들고 주막으로 가세. 천석꾼 부자 황 참봉이 기다리고 있네.”

박 씨는 이끼로 짙은 산삼을 보자기에 싸서 약재상을 따라 저갓거리 주막으로 갔다. 황 참봉과 그의 수하들이 술상을 차려 놓고 박 씨를 기다리고 주막 주변에는 온갖 사람들이 산삼을 구경하려고 몰려들었다. 박 씨가 보자기를 풀자 120년생 동자산삼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모두가 탄성을 지를 때 누군가 번개처럼 산삼을 낚아채더니, 120년 묵은 동자삼을 한 노름꾼이 와그작 와그작 씹어 먹어 대는 것이 아닌가? 주막은 삼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황 참봉의 수하들이 산삼 도둑의 멱살을 잡아서 들어 올려보니, 폐병으로 콜록콜록하는 노름꾼 허골이었다. 제대로 놀음판에 끼지도 못하고 뒷전에서 술심부름이나 하고 고리나 뜯는 집도 절도 없는 젊은 놈팡이 허골은 맞아서 코피가 터지고 입술은 당나발처럼 부어오른 채 황 참봉 수하들에 의해 방바닥에 내동댕이쳐져 있었다.

“이놈을 포박해서 우리 집으로 끌고 가렸다. 이놈의 배를 갈

라 산삼을 끄집어낼 테다.”

황 참봉의 일갈에 허골은 사색이 되었다. 바로 그때 박 씨가 나섰다.

“참봉 어른, 아직까지 허골의 배 속에 있는 그 산삼은 저의 것입니다. 이놈의 배를 찌든지 통째로 삶든지 제가 데려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듣고 보니 박 씨의 말이 맞아 황 참봉은 할 말이 없었다. 박 씨는 허골을 데리고 나와 언덕마루에서 그를 풀어주었다. 이 광경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박 씨는 막걸리 한 사발을 들이키며 크게 한숨을 토했다.

“그걸 팔아 딸애 시집보내려 했는데, 배를 찌들 산삼이 멀쩡할까. 내 팔자에 무슨 그런 복이...”

3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봄날, 예나 다름없이 박 씨가 나뭇짐을 지고 산에서 내려와 집 마당으로 들어오는데 갓을 쓰고 비단 두루마기를 입은 젊은이가 넙죽 절을 하는 게 아닌가.

“소인 허골입니다.”



피골이 상접했던 그 모습은 어디 간데없고 얼굴에 살이 오르고 어깨가 떡 벌어진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허골은 산삼을 먹고 폐병이 완치돼 마포 나루터에 진을 치고 장사판에 뛰어들어 거상이 되었던 것이다.

꽃 피고 새우는 화창한 봄날, 허골과 박 씨 딸이 혼례를 올렸다. 박 씨는 더이상 나무지계를 지지 않게 되었고 이제는 저자거리 대궐 같은 기와집에 하인을 거느리며 살게 되었다.

사람은 누구나 서로서로 용서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품고 살면 언젠가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 하늘의 섭리인가 봅니다. 요즘처럼 바쁘게 앞만 보며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끔은 고요의 시간으로 돌아와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고 음미할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베푸는 시간도 가져보고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을 때 친구를 위해 단문이나마 격려하는 편지를 보내보는 것도 사람의 향기가 나는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가능성에 기회가 있다

방귀희

사)한국장애예술인협회 대표
 숭실사이버대학교 방송문예창작학과 교수
 『E美지』 발행인
 저서 : 〈불교의 복지사상〉 〈배제와 포용〉
 〈상상한 메시지를 팝니다〉 등

문화예술의 가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다. 안데르센이 쓴 동화는 지금도 전세계 어린이들이 독자이다. 그래서 덴마크 GDP의 5%가 안데르센 동화의 판권 수입이라고 한다. 하지만 안데르센 개인은 불우한 어린시절을 보냈다. 그의 아버지는 구두 수선공이었고, 어머니는 세탁부로 집안이 가난하여 공부를 계속할 수 없었다. 작은 시골 마을에 살던 안데르센은 14살에 코펜하겐으로 상경하여 배우가 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의 꿈은 이루어지 않았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와야 했다. 부친의 사망과 누이의 정신병으로 가족들을 돌봐야 했기 때문이다. 그는 28살부터 동화를 썼는데 안데르센이 남긴 수백편의 동화는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랑을 받고 있다.

그리고 조앤롤링의 〈해리포터〉 시리즈는 하루 10억 원의 저작권료를 벌어들이고 있다. 조앤롤링은 〈해리포터〉 원고를 출판사에 보냈지만 거절을 당하기 일쑤였다. 12번이나 거절을 당해 지쳐있을 무렵 신생 블룸즈버리 출판사는 〈해리포터〉 출간을 결정하였다. 다른 출판사들이 거절한 이유는 작가가 신인이어서 작품성을 신뢰할 수 없고, 내용이 황당무계하여 독자들이

외면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인데 블룸즈버리 출판사는 〈해리포터〉 원고를 읽고 그저 재미있어서 출판을 했던 것이다.

메이저급 출판사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작가의 명성과 선정 기준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작품을 선택해 왔었기에 보물을 놓친 것이다. 블룸즈버리 출판사는 그런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 〈해리포터〉의 재미가 독자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조앤롤링에게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조앤롤링이 〈해리포터〉를 집필할 당시 이혼과 실직 속에서 아기를 키워야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생활지원을 받고 있던 상태였다. 그런데 〈해리포터〉가 소설과 영화에서 초대박을 터트리면서 세계적인 부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K-팝 최초로 뮤직동영상 50억뷰를 돌파한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2012년 국내에서는 B급 문화로 크게 호응을 받지 못했지만 열정적인 말춤에 매료된 유럽에서 돌풍을 일으켰다. 방탄소년단(BTS)이 2013년 데뷔했을 때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그런데 BTS는 미국에서 새롭게 탄생하였다. 음악에 메시지를 담은 A급 문화로 2017년 빌보드 차트에 이름을 올리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BTS의 A급 문화는 전세계에 팬덤을 형성하여 아미(Army)라는 강력한 힘을 갖게 되었다.



안데르센은 이야기를 좋아해서 배우가 되고 싶었지만 그는 이야기를 글로 표현하는데 소질이 있었던 것이다. 조앤롤링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주위 사람들은 엉뚱한 사람이라며 그녀를 밀어냈지만 그 엉뚱함이 없었다면 <해리포터>가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B급 문화가 한류의 동력을 만들었고, 당시 신생 기획사 소속인 BTS는 국제 무대를 통해 진가를 인정받았다.

이런 사례들이 지금 희망을 갖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도전의 꿈을 갖게 하고, 기득권층도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했던 시각을 버리고 사람이 갖고 있는 가능성을 보고 기회 주는 파격적인 투자를 시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가능성이 기회가 되는 사회가 되어야 살만한 세상이 될 수 있다.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에게 불성佛性이 있다고 하신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귀하다는 것이다. 그 귀함을 잘 살려주면 정말 귀한 인재가 될 수 있다. 새해는 청룡의 해이니 많은 인재들이 나타나리라 기대한다. 그 인재들이 우리의 미래를 안전하고 풍요롭게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다.

경복궁 속의 불교

남해 정사

불교총지종 통리원 사무국장

한국불교는 삼국시대에 국가적인 수용으로 큰 발전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 시대에 많은 승려들이 교학 연구에 힘썼고 중국 불교와는 다른 독창적인 불교의 기틀을 다졌다. 그리고 통일신라시대에 불교의 대중화가 이루어지며 다양한 계층의 적극적인 신행이 행해지면서 불교가 더욱 융성하게 되었다.

특히 불교를 진흥시킨 신라 진흥왕은 경주에 신궁을 짓다가 황룡이 나타나자 이를 이유로 궁궐을 사찰로 바꾸고 황룡사라 이름 지었다. 이처럼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에는 궁궐이 구조 상 사찰이 되기도 하고, 사찰과 궁궐이 공존하기도 했다.

백제 무왕은 익산 왕궁리에 궁궐을 지으면서 궁의 정전 앞에 5층 석탑을 세우고, 금당과 강당을 비롯한 사찰건물을 배치했다. 이 시대에는 사찰을 궁으로, 궁궐을 사찰로 사용해도 무난했을 만큼 궁궐과 사찰건축이 서로 닮아 있었고, 이는 불교문화가 얼마나 융성하게 발전되었는지를 보여준다.

고려시대에도 불교를 국교로 숭상하였으며, 많은 의례와 법



©문화재청홈페이지_경복궁 교태전

회를 국가에서 주관하며 사회적 저변을 넓혔다. 또한 승과와 승직을 통해 불교를 사회 제도권으로 수용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하였다.

그러나 고려말 유입된 유교가 조선시대에 국시로 숭상되면서 불교가 배척되었다. 교세와 사회적 역할이 약해진 불교는 대중들의 기복신앙으로 명맥이 유지되는 쇠퇴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궁궐건축과 사찰건축은 많은 면에서 닮아있다. 궁궐과 사찰

은 여러 개의 문을 지나 주요 전각으로 나아가는 방식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누각과 정자 그리고 다양한 주거 시설의 양식은 서로 비슷하다. 현재 서울에는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덕수궁 이렇게 다섯개의 궁궐이 있다. 이중 경복궁은 송유억불 정책을 주도했던 정도전에 의해 성리학적 이념에 기반을 둔 건물을 배치했고 철저하게 이단으로 배척받고 억압받은 불교의 흔적은 건물의 배치와 외관상으로 찾아보기 힘들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왕실이 드물게 등장함에 따라 궁궐 곳곳에 불교의 흔적이 스며들게 되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세종때 지은 경복궁 함원전은 불상을 모셔두고 불교의식과 행사를 열었던 곳이다. 함원전은 왕비의 거처인 교태전 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함원전의 후원은 아미산이라는 교태전 뒷동산과 이어져 있다.

함원전은 왕실의 지원을 받아 지어지고 이후 궁내 내불당으로서의 지위를 지켜왔다. 그리고 경복궁 강녕전과 경성전의 추녀마루 끝에 잡상이 올려져 있는데 이 잡상은 주로 서유기에 나오는 인물 형상을 하고 있어 불교적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경복궁의 궁궐 단청을 보면 사찰 단청과 많이 닮아있다. 경복궁의 강녕전, 교태전, 함원전의 대들보 중간은 여백처리가 아니라 사찰의 금단청처럼 문양이 가득하다. 더욱이 그 문양이 불교의 상징인 만자와 동일하다. 교태전의 뒷동산인 아미산은 중국 불교 4대 명산 중의 하나로 중국불교의 성지이다.

경복궁 외에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덕수궁의 곳곳에도 불교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지금까지 무심히 다녀왔던 궁궐 투어였다면 이번에는 궁궐에 숨겨진 불교의 흔적을 찾고 송유억불의 어려웠던 시대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어가고자 했던 선조들의 신심을 되새겼으면 좋겠다.

눈으로 읽는 전통등 이야기

한국전통등연구원

1996년 전통등연구회를 시작으로 오늘날까지 한
지전통등을 계승하며 새로운 문화를 열어가고
있다.



마다가스카 알렉스 Madagascar Alex

PASRT2. 애니메이션과 캐릭터_마다가스카

마다가스카(Madagascar)는 2005년 개봉된 드림웍스의 애니메이션이다. 영화는 뉴욕의 동물원을 탈출한 사자, 얼룩말, 하마, 기린이 미지의 정글 마다가스카에 표류해 겪는 모험을 그렸다. 1편의 성공으로 2008년, 2012년, 2014년에 후속작이 발표되었다. 작품은 미국 드림웍스(DreamWorks Pictures)의 감수로 제작되었으며, 에버랜드에 전시되었다.



마다가스카 펭귄특공대 Madagascar Penguins



마다가스카 마티 Madagascar Mar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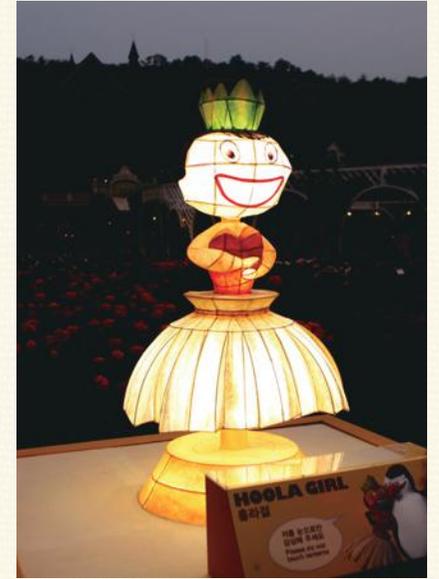
마다가스카 지아 Madagascar Gia



마다가스카 소냐 Madagascar Sonya



마다가스카 메이슨 Madagascar Mason



마다가스카 훌라걸 Madagascar Hula Girl



마다가스카 글로리아 Madagascar Gloria



마다가스카 비탈리 Madagascar Vitaly



마다가스카 스테파노 Madagascar Stefano



마다가스카 줄리언 Madagascar Julien

지명^{地名}-총지종 총본산^{總本山} 총지사는 역삼동에 있다

해광 정사
시법사 주교

서울 강남 역삼동^{驛三洞}의 지명 유래는 역 부근의 3개 동네가 합친 곳입니다. 조선시대의 역^驛은 말이 쉬고 여행객의 숙박시설이 있던 곳이며, 3개의 동네는 말죽거리(양재동), 상방하교, 하방하교입니다. 대개 지명은 유래가 있습니다. 강북의 수유리^{水籬里}는 물이 넘친 동네이고, 우이동^{牛耳洞}은 북한산의 봉우리가 소의 귀처럼 생겼다는 모습에서 지명으로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불교에서 유래된 지명은 어느 곳이 있을까요?

보통 절의 이름에서 나옵니다. 대표적인 곳의 청량리^{淸凉里}는 맑고 시원한 바람(홍릉숲)이 부는 뜻을 가진 청량사^{淸凉寺}에서 나왔습니다. 신라말에 창건되었고, 이성계의 딸 경순공주가 비구니로 들어간 절이며, 지금도 비구니절입니다.

미아리^{彌阿里}는 미아사^{彌阿寺}에서 유래가 있어 미는 미륵부처님, 아는 아미타부처님의 첫 자를 일컫습니다. 경기도 안양시^{安養市}는 안양사^{安養寺}에서 시작 되었고 안양은 극락정토를 뜻합니다. 경주 불국사에 가 보면 다보탑과 석가탑이 있는 부처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문을 안양문^{安養門}이라 합니다.



총본산 총지사



불국사 안양문

서울의 지명중 불광동^{佛光洞}은 불광사, 보문동^{普門洞}은 보문사 (보문: 모든 사물은 각각 일체의 법을 갖고 있음), 보광동^{普光洞}은 신라 진흥왕 때 이곳에 절을 세운 보광국사의 이름으로 부터 유래가 있습니다.

지명뿐만 아니라 불교 용어 중 일반화 된 단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로^{長老}는 덕행이 높고 나이가 많은 비구라는 뜻인데 타종교에서 사용합니다. 방편^{方便}은 부처님이 중생에게 알기 쉽게 설명한 것을 응기응변의 편의적 수단이라 봅니다.

밀어^{密語}는 불교(밀교)에서 여러 교의를 비밀스럽게 설명하는 뜻인데 남녀 사이의 달콤하고 정다운 이야기로 씁니다.

다반사^{茶飯事}는 차를 마시고 밥을 먹는 일을 의미하는데, 늘 있고 당연한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찰나^{刹那}는 불교에서 쓰는 시간의 최소단위입니다. 불가사의^{不可思議}는 표현하거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오묘한 이치를 말합니다.

우리 아이 양육 길라잡이 2

강남구 구립어린이집연합회

강남구에 60여 곳 이상 자리 잡고 있는
구립어린이집 연합



01 두발 모아 앞으로 뛰기를 두려워하는 아이

02 밥을 먹을 때 음식을 많이 흘리는 아이

03 앉을 때 바르게 앉지 못하는 아이

04 줄넘기를 넘지 못하는 아이

05 이유 없이 뛰어다니는 아이

06 소변을 조금씩 자주 보는 아이

07 걷다가 주저앉으며 잘 안 걸으려는 아이

08 젓가락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보이는 아이

09 혼자서 걸어가거나 뛰어갈 때 잘 넘어지는 아이

2. 밥을 먹을 때 음식을 많이 흘리는 아이

손가락으로 밥을 떠서 입에 넣으려는 순간 밥이 떨어진다. 바닥과 아이의 셔츠와 바지에 밥풀이 묻는다. 밥을 먹고 난 후 자리에 많은 양의 음식물이 흘려져 있다.

원인

- 1) 식사를 할 때 바르게 앉는 것이 힘든 경우
- 2) 식탁의 높이와 앉은키 높이 차가 많이 날 경우
- 3) 식사 보다 미디어, 놀잇감 등에 관심이 있을 경우
- 4) 소근육 발달 및 눈과 손의 협응 능력이 미숙한 경우
- 5) 손가락의 바른 사용을 숙지 못한 경우

지도방법

1) 식사 시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수저 놓기, 반찬 뚜껑 열기 등 함께 준비한다.

2) 식탁의 거리를 좁히거나 한손은 그릇을 잡고 눈은 음식을 보고 바르게 앉아서 먹을 수 있도록 한다.

3) 아이가 바르게 숟가락을 잡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다.

4) 식사 예절을 지키며 식사할 때 아이를 칭찬해준다.

5) 식사 후 흘린 음식과 주변 정리를 함께 한다.

6) 가위로 빨대 자르기, 밀가루 반죽하기, 컵 쌓기 등 눈과 손의 협응력 및 소근육 발달, 주의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놀이를 한다.

지난 호 정답

① 불	㉞ 교	총	㉞ 지	종		㉞㉞ 갑	진		㉞ 고
	세		구		③ 장	갑			집
	발		④ 촌	극		⑤ 증	거	인	멸
⑥㉞ 풍	전	㉞ 등	화		㉞ 관				도
비		신			⑦ 세	상	㉞ 살	이	
박		⑧ 불	㉞ 협	화	음		랑		
⑨ 산	㉞ 책		시		⑩ 보	리	살	타	
	살		⑪ 불	㉞ 화	살		랑		㉞ 추
⑫ 너	머			초		⑬ 축			상
	⑬ 리	더	십		⑭ 지	구	온	난	화

지난 호(1월) 정답에 참여해주신
신항섭님 고맙습니다.

퀴즈로 알아가는 알쏭달쏭 상식

①㉓		㉒		㉑		㉐		②	㉏
				③					
④	㉍		⑤㉔					⑥	
							㉌		
⑦							⑧		
				⑨	㉋				
㉔							⑩		㉑
⑪			⑫㉒						
							⑬⑭		
⑭						⑮			

칸을 채워 편집실로 보내주시면 독자 정답란에 기재되며,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 이메일 : news@chongji.or.kr

가로 열쇠

- ① 총지중 종조 원정대성사의 진영이 봉안되어 있는 역사 기념관
- ② 사건이나 사도를 깨어 버리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는 뜻, 파사00
- ③ 옛날부터 전해 오는 관습으로 계절에 맞춰 행해지는 고유 행사와 풍습
- ④ 돈, 귀중한 서류, 귀중품을 간수하여 보관하는데 쓰는 창고
- ⑤ 도의 행정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지방 관청
- ⑥ 해변이나 섬, 방파제 근처에 높게 세운 탑 모양의 구조물
- ⑦ 한량없는 중생에 대해 일으키는 네 가지 마음
- ⑧ 낙숫물이 밑으로 흐르다가 추위로 길게 얼어붙은 얼음
- ⑨ 사람의 성품이나 언행이 아주 침착하고 느긋함
- ⑩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의 장편 소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 ⑪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는 사람
- ⑫ 어떠한 일이나 사물 따위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 ⑬ 먹는 용도의 기름으로 주로 무언가를 부치거나 튀길 때 쓰임
- ⑭ 어리석은 영감이 산을 옮긴다는 뜻의 사자성어
- ⑮ 사랑으로 베풀어 주는 신세나 혜택

세로 열쇠

- ㉑ 원금과 이자를 합친 돈
- ㉒ 투표나 의결 등에서 자기의 권리를 버리고 행사하지 않음
- ㉓ 기획재정부 소속 외청으로 관세를 처리하는 중앙행정기관
- ㉔ 닭고기 토막을 기름에 튀겨 양념소스를 끼얹어 만드는 한국식 중화요리
- ㉕ 새해 첫 보름달이 뜨는 날, 음력 1월 15일
- ㉖ 생산량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지출되는 비용
- ㉗ 한 도의 행정을 맡아 총괄하는 자치 단체장
- ㉘ 우쭐하여 뽐내는 기세가 대단하다는 뜻의 사자성어
- ㉙ 독도 연안에서 잡히는 식용 새우
- ㉚ 같은 무리끼리 서로 사귀
- ㉛ 뒷사람 아랫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질서가 있음을 뜻하는 삼강오륜의 하나
- ㉜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 최고봉 해발고도 2,750m
- ㉝ 쌀밥에 엿기름가루를 우린 물을 부어 삭힌 뒤 단맛이 나도록 만든 음료

불교총지중 법회 일정

공식불공	매일 오전 10시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자성일불공	매주 일요일	상반기 49일	양력
	오전 10시	진호국가불공	2월 19일 ~ 4월 8일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간	하반기 49일	양력
신년불공	1월 첫째 주 7일간	진호국가불공	5월 28일 ~ 7월 15일
종조탄신일	양력 1월 29일	해탈절 (우란절)	양력 7월 15일
종조멸도절	양력 9월 8일	창교절	양력 12월 24일

불교총지중 연중 불사

신년불공

한 해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기원하는 불공

상반기, 하반기 진호국가불공

불교총지중은 창종 이래 진호국가·호국안민의 정신으로 항상 나라와 국민을 위한 진호국가 불공을 올리고 있다. 연중 불사에 부국강병·국태민안·조국평화통일을 기원.

특히 매년 2월 19일부터 49일간, 5월 28일부터 49일간을 상·하반기로 하여 '진호국가불공기간'으로 정하고 『수호국계주경』에 의한 진언 '옴홍야호사'로써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불공.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 동안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기원 드리는 불공.

자성일 불공

매주 일요일에 자신의 본성을 찾고, 일체중생의 재난소멸과 행복을 기원 드리는 불공.

불교총지중 사원 일람

사원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통리원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3
동해중학교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사회복지재단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3452-7485
서울경인교구			
관성사	03166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10 관성빌딩 (홍파동)	(02)736-0950
밀인사	031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3길 22 (송인동)	(02)762-1412
법천사	1338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11번길15 (하대원동)	(031)751-8685
벽룡사	0870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로 136 (신림동)	(02)889-0211
시법사	21358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도로75번길 6 (부평동)	(032)522-7684

실지사	0116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30길 51 (미아동)	(02)983-1492
정심사	02137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95길 26 (상봉동)	(02)491-6888
지인사	21436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안산로 3 (십정동)	(032)528-2742
총지사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
충청전라교구			
만보사	35045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공원로530번길30 (대사동)	(042)255-7919
법황사	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21-1 (구동)	(062)676-0744
혜정사	28485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131번길5 (내덕동)	(043)256-3813
흥국사	5504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따박골5길 12 (효자동1가)	(063)224-4358
증원사	28065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4길 266-78 (이평리)	(043)833-0399
대구경북교구			
개천사	41958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23길 38-10 (봉산동)	(053)425-7910
건화사	38009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양월교동길 6-4 (양월리)	(054)761-2466
국광사	38145	경상북도 경주시 중앙로 77 (동부동)	(054)772-8776
단음사	38843	경상북도 영천시 서문길 33 (성내동)	(054)333-0526
선립사	3754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79-8 (중성리)	(054)261-0310
수계사	38048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다경길36-19 (하구리)	(054)745-5207
수인사	3770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서동로 67 (덕산동)	(054)247-7613
승천사	38129	경상북도 경주시 구정3길 20-1 (구정동)	(054)746-7434
제석사	41237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7길 16 (효목동)	(053)743-9812
부산경남교구			
관음사	4726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197번길 35(당감동)	(051)896-1578
단향사	53075	경상남도 통영시 데메4길 15 (도남동)	(055)644-5375
덕화사	46547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2-8 (덕천동)	(051)332-8903
밀행사	50427	경상남도 밀양시 노상하4길 6 (내이동)	(055)354-3387
법성사	48817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59, 201호(대영아르피나)	(051)468-7164
삼밀사	49060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사랑길 109 (영선동1가)	(051)416-9835
심화사	48959	부산광역시 중구 흑교로78번길 17 (보수동1가)	(051)254-5134
실보사	44452	울산광역시 중구 화진길 14 (태화동)	(052)244-7760
운천사	5125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17길12(자산동)	(055)223-2021
일상사	50409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금산7길 7-3 (금산리)	(055)352-8132
자석사	48245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서로54번길 47 (광안동)	(051)752-1892
정각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9 (명륜동)	(051)552-7901
화음사	52707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301번길 8 (망경동)	(055)755-4697
동해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내가 하는 음식은 대체로 맛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내 입맛에 맞게 간을 하기 때문이다.
 미리 간을 못 보는 음식도 있는데,
 날 것을 넣고 시간이 다될 때까지
 열어보지 못하는 오븐에 굽는 빵 같은 거다.
 그러나 특별히 설거지 타지 않으면 거의 맛있다.
 이유는 더 간단하다.
 맛있는 재료를 넣으면 대부분 맛이 난다.
 가끔 스스로 놀랄 때가 있는데,
 오늘처럼 빵의 양과 토핑의 양이 딱 맞아 떨어질 때다.
 마찬가지로 김치를 담글 때
 배추 양과 양념이 딱 맞을 때나
 어떤 때는 음식의 간을 깜빡 잊고
 보지 않았는데도 맛있을 때다.
 많이 해보는 일들은 대체로 머리가 기억해주기 전에
 몸이 알아차려 주기 때문에 실패를 줄여주는 것 같다.
 어디 음식만 그럴까.
 익숙하고 오래 해온 일은 대부분 그렇다.
 한석봉의 어머니는 불을 끄고 떡을 썰었다니 말이다.
 갑진년 새해가 되었다고
 푸른 용의 기운을 받아 금방 승천할 것 같았는데
 수백 월, 수천 일, 수만 시간을 살아도
 삶은 늘 익숙지가 않다.
 그래서 '삶은 살면서 배우는 것이다'고 했던가.
 서릿발 나리고 햇살이 그리운 아침
 옷깃 단단히 여매고 일터로 나왔다.
 배우고 나서 돈을 받는 삶이라 생각하니
 다행히 뿌듯하다.

독자님의 사연을 모십니다

생활하면서 느끼시는 작지만 소중한 생각이나 사연,
 워드다르마에 대한 느낌이나 의견 등 담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 주세요. 여러분의 사연들이 법의 향기로
 전해집니다. 전화나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이메일 news@chongji.or.kr

* 불교총지중 홈페이지에 연재글 있습니다 *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워드다르마를 위해 법보시 해 주시는 후원금은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불법을 전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입금 계좌번호

우리은행 122-047811-13-128 불교총지중

보내주신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공덕성 법 공 보명심 불교총지중유지재단 안한수
 우 인 이수영 이인성 이혜성 자선화 총지화
 한철수

(사)한국불교사진협회 회원일동(무수)

지회) 박차봉 강영철 박영중 조덕제 옥장운
 윤병재 김갑태 박종한 김상길 김인규
 황규철 이정식 김영옥 이금숙 여성숙
 배여진 김정순 김행숙 서순옥 서금순
 박영구 조장현 박태수 김일량 장승재
 본회) 최우성 조현숙 최금란 박정미 정봉채
 박봉수 전제우 김진문 윤종일 김석한

🏠 불교총지중 홈페이지 총지미디어

<http://www.chongji.or.kr>

✉ 이메일 : news@chongji.or.kr

구독 신청해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발행일 총기 53(2024)년 2월 1일
 발행인 우인 정사
 편집책임 박재원
 발행 불교총지중
 주소 06227 서울 강남구 도곡로25길 35 (역삼동)
 전화 02-552-1080~3
 팩스 02-552-1082

2월호



부귀하면 교만하기 쉽고
빈천하면 아첨하기 쉽다
흔들리지 않고 굽히지 않으면
이를 성불했다 하리라

- 환당 대중사 법어록 중에서 -